



# 海外旅行 見聞記

## 강남의 나라 · 뉴질랜드 견문기

이 무 환

(제주대학 농학부)

필자 : Colombo 계획에 의하여 지난 1969. 11~971. 4. 20  
까지 뉴질랜드 링컨대학에서 축산 연구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 오면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라는 노래를 부르던 국민학교 시절이 생각됩니다. 도대체 강남(江南)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추리적인 사고능력도 없었던 그때에는 가슴으로 내다보는 저 남쪽 이 러니 생각하고 그리워 했습니다. 1969년 11월 23일 김포비행장을 출발하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타고 강남을 탐험(?)했습니다. 대만에서 2시간 비자를 얻지 않아서 비행장밖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비행장에 갇힌채 홍콩으로 연결되는 태국젯트여객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가는 여행자들을 봤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굼직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홍콩과 비슷한 기후였으며, 장마철이어서 습기를 뿜는 훈훈한 대기였습니다. 홍콩비행장은 어수선하고 건물이 낮은 인상을 느꼈으나 2년 후 귀국할때 다시 들리니 새로운 비행장건물이 들어서고 절서가 잡힌 듯한 느낌을 얻었으며 여전한 풍경은 순찰경찰의 복장입니다. 여름 옷차림으로 짧은 바지에다 길게 늘어진 방망이며 동양인 특유의 굵은 두다리 때문에 영국식 옷차림이 동양인의 체격에 썩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선을 오가는 여행자 중에는 여자 여행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6년전에 미국 하와이대학에 유학차 여행했을 때에는 남자안내원은 볼 수 없었던 것같은데 루트는 다르지만 태국여객기의 승무원중 남자가 끼어있었고 홍콩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나르는 비행기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나르는 비행기에서도 남자가 있음을 봤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들이 이러한 직업을 꺼려하여서인지, 또는 식사를 운반할 때를 위한 물리적 여건에서인지 심리적배려 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행기안에서의 식사는 여행자의 피로를 덜어주는 외에 여러가지 양식(洋食)들간의 차이를 항공기가 소속한 국적에 따라 감별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생활정도를 말해주는 듯한 인상을 얻었습니다. 목적지인 웰링턴에 도착하니 그 나라 정부 외무부의 여직원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통관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의 직원은 물론 책임자급까지 여자이며, 도서관은 책임자 몇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자이었습니다. 모두 이 나라의 여성의 활동이 치대한 것이었습니다.

인구 2,750,000명이 일본 땅덩어리 정도의 크기(6천 6백만 에이카)의 땅위에서 세계 제 4위(位)의 면양(6천 1백만두)과, 젓소, 육우등을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초지, 목야지에서 생산하여 영국 및 영연방국(British Commonwealth)들과 미국, 일본등지에 수출하고 그 돈으로 기계류등을 수입하여 평균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닭은 자급에 충족할 정도이며 돼지고기가 소고기값보다 비싼 곳이 이곳입니다. 양고기는 이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싼값으로 먹는 육류로서 노린냄새의 특유한 냄새때문에 특히 동양인이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일본인에게 양고기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필자에게도 배우라는 충고를 받았으나 자진하여 청해본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풀을 가지고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나라 국민은 기계생산은 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축산물 수출에서 얻은 돈으로 외국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류를 수입하는데, 자가용차는 3.7인이 한대 풀이며, 텔레비는 5.7인이 한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텔레비는 채널이 한개 뿐이었습니다. 자동차수가 텔레비수 보다 많다는 사실을 볼때 이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적이라는 일면을 보여줍니다. 여름방학(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에는 학생들은 농촌 목장에가서 양모(羊毛)를 깎고, 혹은 젓소를 관리하기도하며, 시험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댄다 해서 다음 학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럭비, 크리켓, 스쿼시, 정구, 스키, 축구등이 대표적이며, 낚시, 사슴사냥, 요트타기등이 있고, 이밖에 놀음으로는 경마, 복권, 술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가게는 문을 닫고, 관공서와 은행등이 휴무입니다. 또한 매일 기계문은 5시 30분에 문을 닫기 때문에(금요일은 밤9시까지) 이나라 실정을 모르는 여행자나 외국인은 긴주말과 매일밤에 물건을 살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놀며 또 철저히 논다는 것이 이 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불평하는 점입니다.

“윈도우 쇼핑”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이해 하듯이 진열장을 구경하기만 하고 상품을 사지 않는 식의 「눈요기」가 아니며, 이에 는 그럴사한 이 유가 있습니다. 상점을 경영하는 자들은 손님에 위한 희생이 아니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나도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나도 가족과 같이 쉬 자는 것입니다. 5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꼭 사고싶은 사람이 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한 마음씨의 소유자에게는 재차 속고하여 상품을 사게 하는대는 주머니돈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필자가 「크라이스 처취」지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링컨대학에서 연구하였는데 주말이면 시내에 나와서 바쁜 쇼핑을 하며 때로는 윈도우 쇼핑을 즐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뒷보다도 반가운 일은 진열장에 한국제 물건이 놓여있을 때입니다. 우연히 어느 가게에서 한국산 라디오를 발견 했을때 그 기쁨이란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강남을 건너서 저 남극(南極)에 가까운 이 「뉴질랜드」에, 그것도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며 다만 한국전쟁으로 들어서 아는 나라, 한국, 이 나라의 상점주인 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쇼윈도에 자리잡은 이 “Made in Korea”는 한국의 능력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값이 싸고 소리도 선명하다는 말을 그곳 사람이 들려주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각 상점에서 태극기를 꼽는 길 이 있다면 오로지 이 “Made in Korea”를 많이 수출하는 길 뿐입니다.

남쪽의 「알렉산드리아」지방은 다른지방과는 특이한 과수원지대이며 이 지대는 축산물외에 복숭아, 살구등의 과실을 생산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100여년전 이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금(金)을 캐는 역사를 안고있는 지대였습니다. 필자는 이지방에서 활발히 청년운동을 하고 있는 제이씨 회원들의 초청을 받고 연가의 바쁜 틈을 타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퀸스타운」의 아름다운 풍경은 인상적이었으며 관개방법으로 목초지를 확장하는 시험사업을 견학했으며, 이중 특히 필자가 관심있는 양계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이 나라에는 풀을 주사료로 하는 반추동물 외에는 양계등은 극히 소규모인 것으로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 기회에 이 나라의 양계업계를 어렵듯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양계업을 관할하는 기구가 2개 있는데 전국 40개 지역에서 선출된 5명의 이사들과 정부에서 파견된 2명의 이사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933년에 설립된 양계협회의 기능을 보면 ① 양계업계의 조직과 발전 ② 양계업 운영과 법적지위문제 ③ 양계업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입니다.

1953년에 설립된 계란판매기구는 계란취급, 등급 및 분배가 그 주임무입니다. 양계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질이 좋은 달걀은 받아들여서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처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공급, 소비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유생산과 소비를 고정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의 경우와 같이 달걀생산에 있어서도 양계업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양규모를 임의로 증가할 수 없다는 한 양계업자의 주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 3위의 달걀소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달걀판매율은 앞으로 증가시킬 희망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란판매 기구에서는 지방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달걀은 건조란으로 만들어서 일반 제과회사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생산비는 북(北)섬에서는 12개당 48센트(216원)이며, 남섬에서는 44.8센트(201원)인데, 수출용 건조란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면 12개당 10센트(45원)의 이익배당 밖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4년동안 95%가 양계로 되는 전업양계업자들은 자진하여 그들의 사양규모를 소비자증가에 맞춰서 조정해왔으나, 이와 반면 농가양계가들은 최고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양규모를 증가시켜왔으며, 가금배합사료업자들의

격려와 자금의 뒷바침으로 계란생산의 팽창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면허제도는 이러한 경향의 패턴을 막기 위하여 생긴 것이나 양계농가의 문앞에서 소매하는 행위나 1만분이 소요되는 1000수까지는 무방하다는 다소 신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당받은 사양규모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초과된 닭 1수당 5분의 비율로 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판매기구는 양계 경영방법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왔는데 그의 한예로 산란직후 급속한 냉각취급 및 분배상의 세심한 주의에 관한 사항의에 일정한 품질 표준을 정하여 규격화하고 있는데 그 품질표준의 일례를 들면 난각의 청결도, 난백(卵白)의 강도(強度)와 난황의 황금색 균일화등 3가지 요인이 계란판매기구에서 세우는 시행목표입니다.

뉴질랜드 양계규모

구 분	등록업자수 1968/69		가금수 1968/69	
	(수)	(%)	(수)	(%)
200수 이하	2,062	58.3	149,535	4.2
200~500수	323	9.1	115,529	3.2
500~1,000수	288	8.1	225,761	6.3
1,000~5,000수	738	20.8	1,847,843	51.5
5,000~10,000수	102	2.9	743,609	20.7
10,000수이상	28	0.8	50,6267	14.1
합 계	3,541	100.0	3,588,004	100.0

위생관계에 있어서도 엄밀한 시설제한이 있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양계장에는 자동세척기가 있어 달걀을 일률적으로 깨끗이 씻어서 납품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반소비자가 달걀의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란품질에 대한 강습회, 책자등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정규적으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생산비의 65%가 사료비로 지출되는데 과거 10년간 사료비도 증가되어 왔습니다. 1962년도 북섬에서는 닭 100마리의 하루 사료비는

24.74센트였으나 남섬에서는 22.32센트였고 1968년 북섬에선 30.40센트, 남섬에서는 28.30센트였습니다. 사료급여방법은 필자가 본 5000수규모의 양계장에는 밖에 타워싸이로같은 높이 8미터정도 콩크리트사료통에서 벨트식 공급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계란을 케이지로 부터 수집하고, 사료를 공급하는 방법은 영국식을 모방한 자동 및 반자동식이었으며, 사(舍)내는 완전 조명장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을 넘은 잉여 달걀 생산은 건조하는데 연간 1500톤이 제과용으로 소요되며, 이량은 2백 50만타 또는 정규 생달걀판매량의 3%에 해당됩니다.

이나라의 경제는 수출실적에 거의 좌우되고 있는데, 최근 영국의 구주공동시장(E. E. C.)가입으로 3,4년 후에는 이나라 경제에 큰 변화가 올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풀(草)은 이나라의 철학입니다. 풀은 연구하는 학자, 농민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에 열린 뉴질랜드 초지학회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농민들이 학회회원으로써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민들이 제시한 문제점은 학자들의 연구과제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학자와 농민이 호흡을 같이하는 학회였습니다. 1971년 2월에 개최된 뉴질랜드 축산학회는 그야말로 열띤 진지한 모임이었습니다. 참가회원 거의 모두 기숙사에 투숙하면서 갖가지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학회장선거가 없이 1년 임기의 회장이 임의로 후임회장을 지명하고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질랜드」는 풍요한 자연 조건위에서 착실한 국민들에 의해 평화스럽게 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조심자는 물론 양계가의 지도 및 상담을 모토로 하는

단골 **한진와렌부화장**입니다.

병아리는 수익성이 높고 튼튼한 고성능 **갈색 백색** 계통의

보증하는 병아리 및 오리(카키캄벨, 페킹)를 분양합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53~36

Tel. 38-8529

부화장 :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신장리 434

신촌와렌  
대리점

**한진와렌 부화장 대표 윤석구**